



3. 언약적 심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언약적 저주

레 26장/신 28장의 논의에서 보겠지만 성경에서의 저주의 핵심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언약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언약적 심판이다. 그러므로 저주의 문제는 언약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언약(berith)은 무엇인가? 필자의 많은 글에서 밝혔듯이, 언약(berith)은 인격당사자간의 법적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결혼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사랑의 언약관계이다. 이 언약을 위해서(언약)법이 존재한다. 만약(언약)법 자체가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면 관계의 위기가 올 것이고 위선적인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축복과 저주도 이 언약관계를 유지, 발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과 함께 저주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한 백성(segullah)로 삼으신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는 축복이나 잘못해서 받은 징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언약관계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관계되는 축복과 저주 자체를 절대화하는 전제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저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4. 축복/저주의 결과와 죄의 결과와의 구분

그런데 우리의 논의와 더 많이 관련되는 것은 이 명사적 의미의 축복과 저주이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내용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

건이다. 특히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결과들과 죄와 관계된 결과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인간에게 남겨진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모두 죄와 관련하여서 설명해 왔다. 즉 인간이 지은 죄의 원인차로서 지체의 아비인 사탄과 그 사탄이 준 동기유발, 실제적으로 인간이 짓는 죄, 죄의 결과, 죄의 영향,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드는 죄성 등이다. 이러한 설명구조의 분명한 장점은 모든 것이 인격적인 주체의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격적 주체인 사탄이나 인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주의 결과를 죄와 관련하여서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명확한 차이는 인격적 주체의 의지적인 활동보다 비인격적이며 유전(전승)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주와 그 결과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포괄적인 능력을 믿는 신자의 영적이고 의지적인 삶보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혈통(조상)의 세계에 집착하게 만든다. 기복신앙이 인간의 영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과 현재의 윤리적인 삶보다, 비인격적인 현세의 축복과 그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의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실상 정령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렇게 본질적이라면, 성경에서 그것을 위한 기도문 같은 것이 하나쯤 있을 법하다.